

각위

2019년 4월 11일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신규상장예비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 안내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 산문지 마사타카, 코스닥시장 상장, 이하 「당사」)는 금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도쿄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 예비신청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1999년에 EC결제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확대해 온 가운데, 인터넷 비즈니스의 잠재수요가 크고 SBI그룹의 아시아 전개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한국에서의 신용도·인지도 향상과 사업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금융과 IT기술이 융합하여 탄생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가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국가에서의 본격적인 핀테크 진전에 영향을 받아 당사 사업 거점의 중심인 일본에서도 규제완화 등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보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제서비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조류가 결제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다뤄온 당사에게 큰 성장 기회임을 인식하여, 결제서비스와 친화성이 높은 서비스를 전개하는 기업을 새롭게 산하에 편입시켜 2017년 4월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성장의 실현과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사업 거점의 중심인 일본에서의 신용도·인지도 향상을 통해 기존 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을 비롯한 사업 영역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일본 국내 상장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주식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당사 한국예탁증권(KDR)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당사 주식의 도쿄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의 일본거래소 자주규제 법인에 의한 상장심사 결과, 주식회사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확약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하겠습니다.

이상

*주의: 본 문서는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보도자료이며,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투자 권유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